

당정 “역대 최대규모 추경…긴급일자리 55만개 공급”

김태년 “6월 내 추경 꼭 처러…시장에 강력 신호 줘야” 금융안정, 기업지원, 일자리 창출, 소비확대 등 총망라

당정이 1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극복을 위한 3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가장 큰 규모인 30조원대 추경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4일 국회에 제출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원구성 완료 즉시 6월 임시국회를 열어 추경안 심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6월 내 반드시 3차 추경을 처리하겠다”며 “과감한 3차 추경 편성으로 정부가 반드시 일자리를 지키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줘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3차 추경 규모는 1차 추경 11조7000억원과 2차 추경 12조2000억원을 합친 약 24조원보다 많은 30조원 이상으로 전망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안 국회 통과 즉시 3개월 내 추경금액

이 75% 집행되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며 신속한 추경 집행을 약속했다.

당정은 이날 3차 추경 논의에서 시장에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고 고용충격 안정 특별대책 마련, 한국판 뉴딜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에 집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빠르고 강한 경기회복을 위해 3차 추경을 포함해 확장재정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오늘 경제위기 조기 극복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추경 편성 논의에서 추경 방향과 중점 투자 분야 및 규모에 대해 뜻을 같이 했다”며 “특히 당정이 함께 만들어진 금융·고용 안정 패키지를 재정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이 추경 전체 규모와 방향, 중점내용에 대해 깊이 공감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매출감소 등으로 유동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3차 추경 당정 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성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긴급자금 10조원 지급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출연을 확대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유동성 애로를 겪는 기업의 회사채 보증을 확대하고 비우량 회사채 및 CP 등 매입에 2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수출기업 유동성

확대를 위해 무역보험공사 출연도 늘린다.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증권시장안정펀드에도 총 30조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유동성 공급을 늘려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준다는 계획이다. 또한 고용절벽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

기 위해 디지털 일자리, 비대면 일자리 등 긴급일자리 55만개 이상 공급한다. 저신용 근로자와 대학생, 미취업청년 등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예술인과 체육인,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조금 및 용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 촉진을 위해 은누리상품권을 2조원, 지역사랑상품권은 3조원 추가 발행하고 할인율도 10%로 늘린다. 또한 민주당의 총선 1호 공약이었던 공공와이파이 실현을 위해 2022년까지 전국 공공장소 4만1000개에 와이파이를 신규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도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위해 안전보장이 필요한 노후 터널과 철도, 간널목, 하천 등에 집중투자하고, K방역 산업 육성을 신속 지원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특히 우리 경제가 일자리 창출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로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추진에 집중하기로 했다”며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감염병 치료제 및 백신을 신속히 개발하고 방역 및 의료장비 국산화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의회 의장단 후보자 선출 원칙 결정”

더민주당 순천시지역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순천시지역위원회(위원장 소병철(21대 국회 당선인))는 최근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시의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후반기 순천시의회 의장단 민주당 후보자 선출 원칙과 방법’을 결정하였다.

이날 의원총회는 후보자 선출방법을 당론으로 정하도록 하는 중앙당의 기초

임위원장 후보로는 중복등록을 할 수 없도록 정하였다. 이는 그간 시의회 의장단 선거를 한 후에 낙선한 후보가 다시 상임위원직리에 도전하던 관행을 차단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의장단 선거 결과에 따라 이뤄지던 자리 나눔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의원들은 이날 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을 개진했고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였다.

당 ▲의회의 본질적 기능 강화 - 시정(집행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이 미흡하다는 시민들의 평가를 염두

정훈준 사무국장 직무대리는 투표에 앞서 참석한 시의원들에게 시민단체 대표들로부터 제안받은 4가지 원칙을 전달하였다.

이날 참석한 시의원들은 “전반기 의장단 선출 때는 이미 정해진 자리 배정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되어 아쉬운 점이 많았다. 초선의원들의 의견이 사실상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절차를 거침으로써 참석한 모든 의원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자리였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투명하고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로 회의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하였다.

한 초선의원은 “선배의원들도 처음 겪는 공개된 의장단 선출방법에 관한 회의였고 초선들도 의견을 낼 수 있어 좋았다. 새로운 원내 지역위원장이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니 앞으로 많은 기대가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소병철 지역위원장은 “새로운 시의회를 만들자는 위원장의 결심에 뜻을 함께 해 준 의원들의 열의에 감사드린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지만 순천의 새로운 변화와 정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자”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연임 및 재임 불가, 다선의원 우선, 공정하고 투명한 선출 절차 의회 본질적 기능 강화…사전에 시민단체 의견 수렴 적극 반영

의회 의장단 선출에 대한 지침에 따른 것이다.

선출 지침에 의하면 소속 의원들이 총회를 거쳐 의장단 후보자 선출 방식을 경선이나 합의 추대로 결정하고 결정되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를 따라야 한다. 주요 의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연임 및 재임 불가
- 재선이상의 다선의원 우선 출마
- 상임위원장은 초선의원도 출마 가능
- 또한 의장단 후보 당내 경선 등록시 의장과 부의장을 지정해서 등록하고 상

이에 앞서 YMCA 회의실에서 소병철 지역위원장의 요청으로 마련된 시민단체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순천시의회 의장단 선출 원칙에 대한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시민단체 대표들은 순천시의회 의장단 선출에 관한 4가지 원칙을 제안했다.

- ▲다선의원 우선 원칙 - 여러차례 시민들로부터 선택받은 대표성
- ▲연임 및 재임 불가 - 의장이 권한이 막강하므로 내부견제 기능이 발휘
- ▲공정하고 투명한 선출절차 - 역량과 시민들의 신뢰 바

전남 공연계 재난상황 봄 매출액 128만원 불과

공연 횟수 3회, 예매 수는 고작 32건 그쳐 ‘코로나 직격탄’

전남도의회 김기태 의원

전남도의회 김기태 의원(순천1·더불어민주당)은 1일 정부의 문화예술 공모사업이 선정 결과 실제 서울·경기에 71%가 몰려있고,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전남 공연계에 온라인 공연 콘텐츠 제작 지원과 무관중 공연중계를 제안했다.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지역별 통계(2020. 3. 1.~5.27.)자료에 의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본격화한 3월부터 국악, 연극, 뮤지컬, 무용, 클래식, 오페라 등 전남지역 공연매출액은 128만원, 공연 횟수 3회, 예매 수는 고작 32건에 그쳐 코로나 19로 공연계는 직격탄을 맞았다.

작년 같은 기간대비 매출액은 1/100, 공연 횟수 1/20, 예매 수는 1/300로 공연업계는 매출부진으로 인한 운영비 부족 등으로 아사직전이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봄 기간 공연 매출액이 0인 세종시를 비롯해 지방 공연계가 모두 어려움에 처해 있는 반면, 서울의 경우 오히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매출액은 221억여 원으로 늘고(’19년 198억), 전국 전체 공연 매출액의 점유율(78.4~98.5)과 예매 수(74.9~97.3)도 오히려 높아 공연 관람 기



회의 집중화가 서울로 더욱 심화되는 현상이 벌어졌다.

김기태 의원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모사업 선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한해 선정건수의 경우 서울 경

기도의 72%가 몰려있어, 예술활동증명인 수칙과 비슷해 실제 문화예술사업의 수도권 집중이 사실인 것으로 들어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다중이용 시설 이용이 어렵고, 아직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중인 만큼 대중이 모이는 공연 개최가 어렵다”며 “공연계 종사자 분들도 연연히 생활인인 만큼 비대면 접촉으로 즐길 수 있는 온라인 공연 콘텐츠 제작 지원과 코로나에 지친 도민들을 위해 무관중 공연 실황 중계 등 지원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포스트코로나 이후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기술을 디지털화 하여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공연 콘텐츠 개발로 공연계의 불황을 타개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 062) 971-7400
광고 직통 224-5800
팩 스 222-5547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